



'26년 1/4분기 2026. 04. 13.

# 부동산시장동향

## 2026년 1/4분기 부동산시장, 수도권 중심 회복세 지속

-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
- 급등보다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

## 임대차시장은 전세 강세와 월세화가 동시 진행

- 전국 아파트 전세·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 지속
- 수도권 전세 수급 불균형과 월세 비중 확대가 핵심 흐름

## 공급 회복은 제한적, 수도권 중심 분양 확대

- 인허가 감소세가 이어지며 민간부문 부진이 전체 공급 둔화 주도
- 분양은 3월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됐으나 실적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

## 미분양 부담은 여전, 준공 후 미분양이 더 큰 문제

- 전국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
-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실제 재고 부담 심화

## 수요 회복은 수도권에 집중, 심리는 다소 조정

- 매매수급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뚜렷하게 양호
- 가격 기대심리는 3월 들어 다시 100 아래로 낮아짐

CERIK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## 요약

- **(매매시장)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전월 대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며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임.**
  - 수도권은 서울·인천·경기가 모두 상승했고, 지방도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지속됨.
  - 거래는 저점 대비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전월 대비 소폭 조정되며, 가격 상승과 거래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열 국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.
- **(임대차시장)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통합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수도권 전세 강세와 월세 비중 확대가 최근 임대차시장의 핵심 흐름으로 나타남.**
  - 전세거래는 감소하고 월세거래는 증가해, 임차 수요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·준월세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.
- **(공급) 인허가 부문은 전국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특히 민간부문 부진이 전체 공급 둔화를 주도하는 모습임.**
  - 분양은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3월 수도권 중심으로 크게 늘었으나, 실제 공급은 사업장별 일정 조정 영향이 커 계획 대비 실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.
  - 2026년 2분기 분양예정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아, 당분간 신규 공급의 중심축은 수도권에 될 가능성이 큼.
  - 전국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, 빠른 해소보다는 누적 부담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판단됨.
- **(수요·심리) 매매수급동향은 수도권에 지방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, 수도권 중심의 수요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.**
  - 반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3월 들어 다시 100 아래로 낮아져, 거래와 수급은 개선되지만 가격 기대심리는 다소 조정받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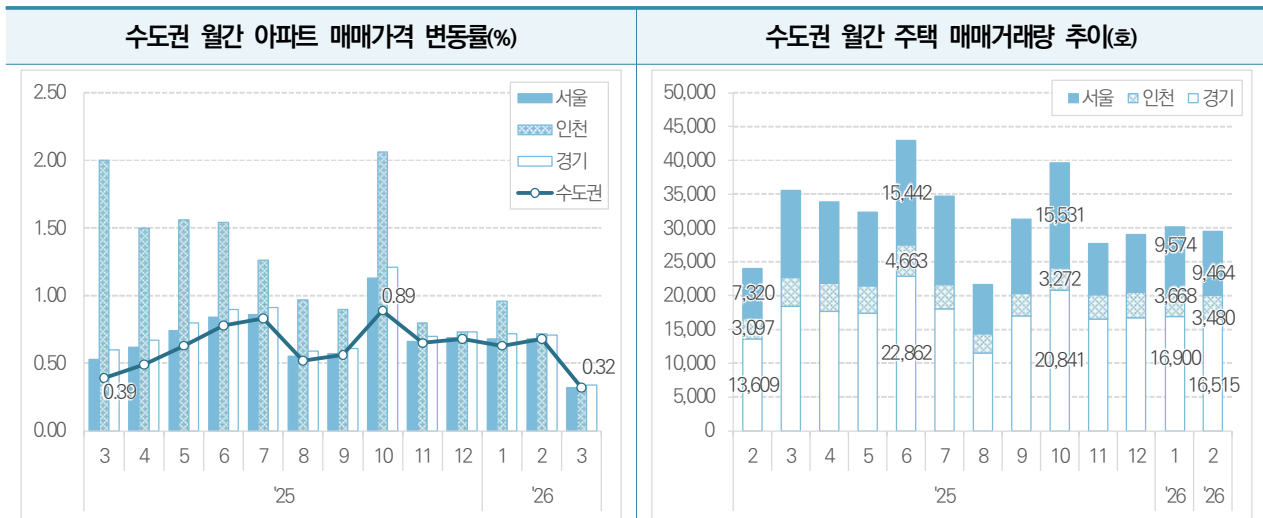
# 1 매매시장

## 1\_수도권(서울인천경기)

- 3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.32% 상승해 전월(0.68%)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으나, '25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세
-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.9만 호로 MoM 소폭 감소(-2.3%)했으나, '25년 1월 저점(1.8만 호) 대비 65.1% 증가

- **(가격)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'25년 초 반등 이후 '26년 3월에도 0.32% 상승해 상승 흐름 지속**
  - 서울(+0.32%)·인천(+0.29%)·경기(+0.34%)가 모두 오르면서 수도권 전역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, 전월(수도권 0.68%) 대비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됨.
  - 특히 서울은 '25년 10월 월간 0.89% 상승한 데 이어 10월 15일 규제 발표 이후에도 0.6%대 상승을 이어갔으나 '26년 들어서는 고점 대비 상승 강도가 다소 완만해짐.
  - 인천은 '25년 연 누적 상승률 16.30%를 기록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, 2026년 3월 0.29%로 수도권에서 오름폭이 가장 적었음.
  - 즉 최근 수도권 시장은 급등보다는 상승세 지속 여부와 확산 범위를 확인하는 국면으로 판단됨.
- **(거래)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9,459호로 집계됐으며, 전월(3.0만 호) 대비 2.3% 감소**
  - 최근 수도권 시장 거래는 3만 호 내외에서 숨 고르기 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,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강화돼 향후 거래량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.

###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;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.

# 1 매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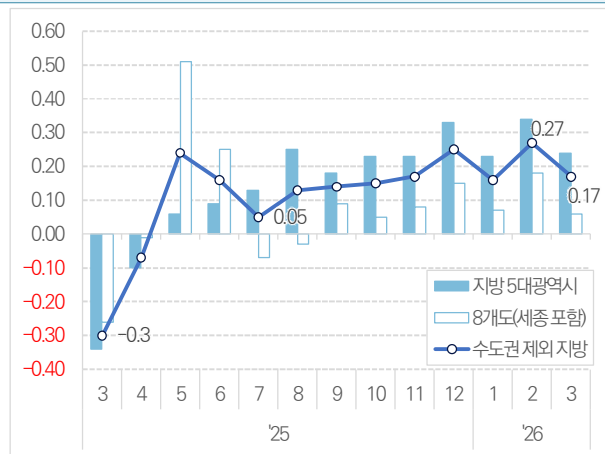
## 2 지방(지방광역시·8개 도)

- 3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17% 상승해 전월(0.27%)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으나, '25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
- 2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2.8만 호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, 2025년 1월 저점 대비 38.3% 높은 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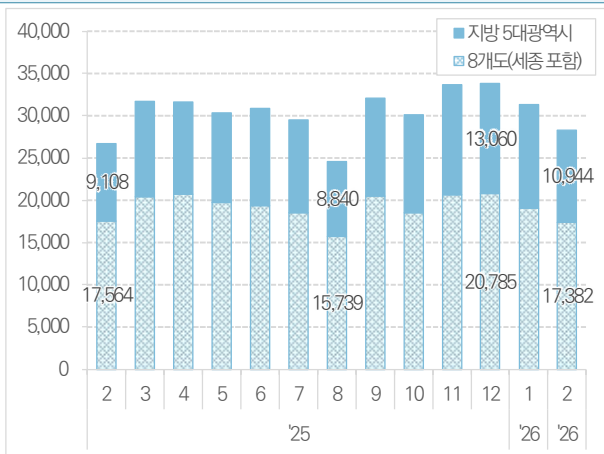
- **(가격) 3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17% 상승했으며, 5대광역시 0.24%, 8개도(세종 포함) 0.06%로 전 지역에서 상승세**
  - 3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17%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(0.27%)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됨.
  - 지방 5대광역시는 0.24% 올라 8개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, '25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지방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임.
  - 세종을 포함한 8개도 지역도 0.06% 상승해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, 전월(0.18%) 대비 오름폭이 축소돼 지방 비광역권의 확산세는 유지되지만 탄력은 다소 약해진 모습임.
- **(거래) 2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8,326호로 집계됐으며, 1월(3.1만 호) 대비 9.5% 감소**
  - 다만 2.8만 호 수준의 지방 매매거래량은 직전 저점인 '25년 1월(2만 476호)보다 38.3%, 전년 동월인 '25년 2월(2만 6,672호)보다 6.2% 많은 수준임.
  - 지방 5대광역시는 1만 944호로 전월 대비 10.9% 감소했고, 8개도는 1만 7,382호로 8.7% 줄어듦.

### 지방 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지방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(%)



지방 월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(호)



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;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.

## 1 매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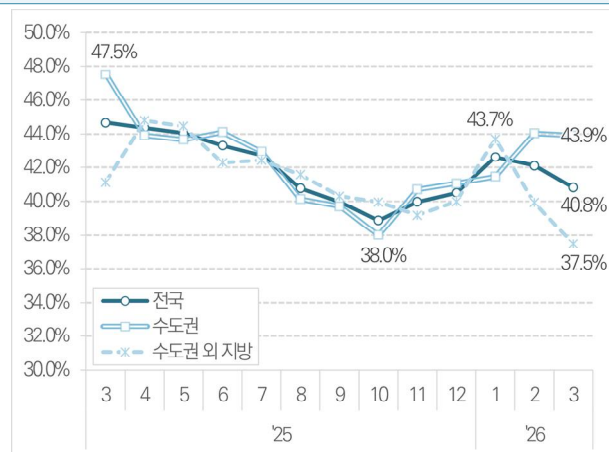
## 3\_거래속성

- 3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0.8%로 전월(42.1%)보다 낮아졌으나, 여전히 40% 상회
- 수도권은 43.9%로 높은 비중을 이어간 반면, 지방은 37.5%로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해 지역 간 차별화가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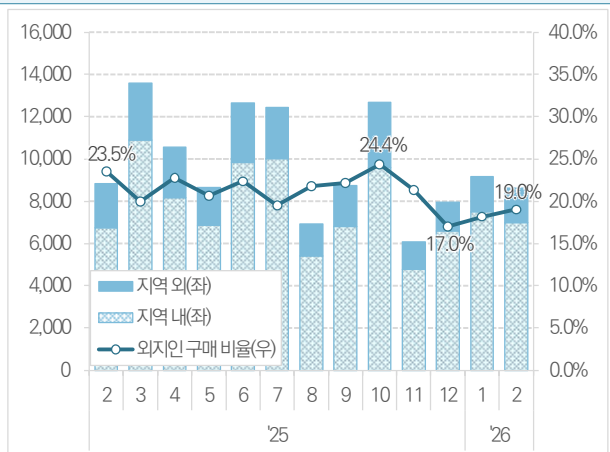
- **(생애최초 구입) 3월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수도권 43.9%, 지방 37.5%로 집계돼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**
  - 3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0.8%로 전월(42.1%) 대비 1.3%p 하락했으나, 최근 흐름상 여전히 40%를 웃도는 높은 수준
  - 최근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것은 정책금융과 저리 대출 지원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.
  - 단,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보수적인 차입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확산세는 제한적일 듯
- **(외지인 거래 비율) 2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거래 비율은 19.0%로 전월보다 0.9%p 높아졌으나, 최근 1년 평균 범위 내 움직임으로 판단**

##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

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 추이(%)



서울 전체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구매 거래 비율(%)



주1 : '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.8%로(동 기준 ; 경기도, 2020),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함.

2 :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.

3 : 외지인 구매 중 '지역 내'란 매수인의 주소가 해당 시도 내인 경우를 말하며 '지역 외'란 시도 외의 경우를 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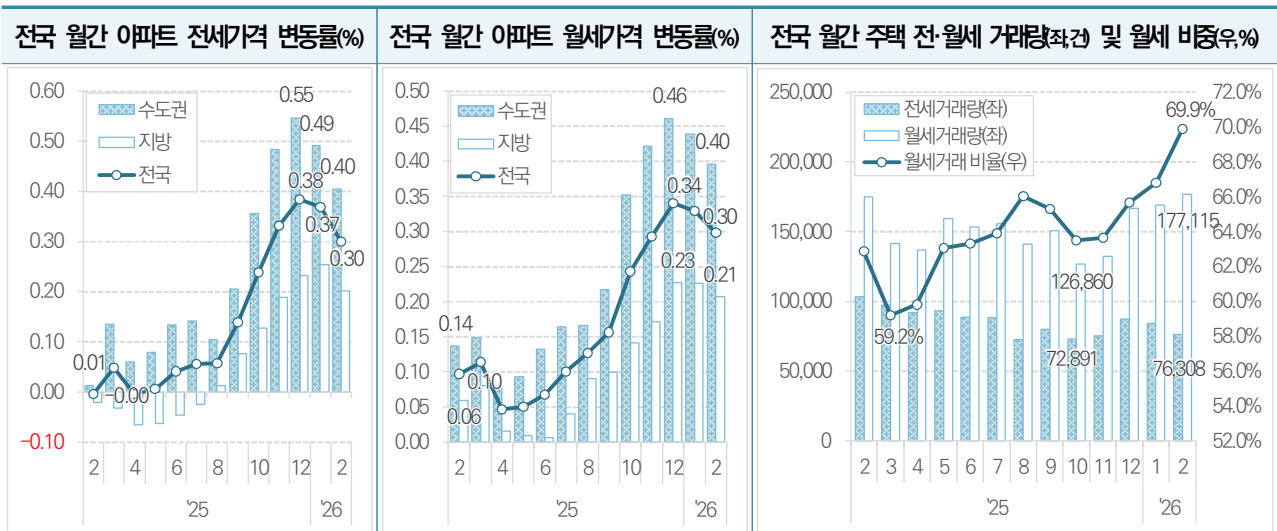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법원 등기정보광장.

## 2 임대차시장

-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.30%, 월세통합가격은 0.30% 상승해 모두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
- 2월 전월세 거래량은 25.3만 건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, 월세 중심 구조 강화(전세 감소 / 월세 증가)

- **(전세)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0.37%에 이어 금월 0.30% 상승해 상승세를 지속**
  - 수도권은 0.49%에서 0.40%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으나, 지방은 0.25%에서 0.20%로 상승세를 이어가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 유지
  - 특히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, 최근 임대차 시장은 매매시장 회복과 함께 수도권 전세 수급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모습
- **(월세) 2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은 0.30% 상승해 1월(0.34%) 대비 소폭 둔화됐으나, 여전히 높은 상승 흐름 유지**
  - 수도권은 0.44%에서 0.40%로, 지방은 0.23%에서 0.21%로 모두 상승폭이 소폭 축소됨.
  - 다만 지방 월세 상승폭이 전월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, 곧바로 하락 전환을 논하기보다는 상승 탄력 둔화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**(거래량) 2월 전·월세 거래량은 25만 3,423건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,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, 월세 중심 구조가 한층 뚜렷(전국 주택 종합 월세 비중 69.9%)**

###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자료 : 한국부동산원, 국토교통부.

### 3 공급

#### 1\_인허가

· 1~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3.1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.9% 감소했으며, 수도권과 8개도 감소가 전체 부진을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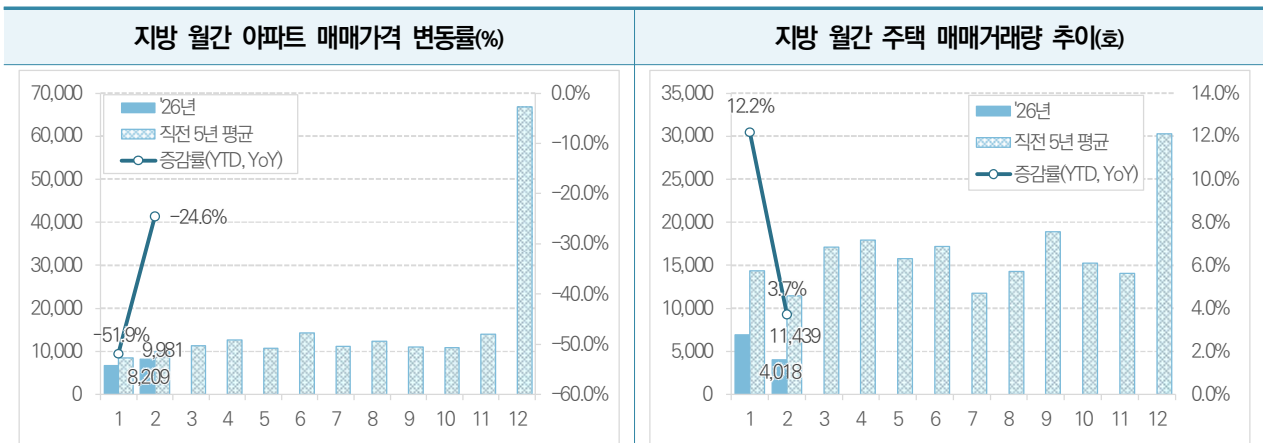
- (주택 전체) 1월~2월 지역별 주택인허가는 수도권은 19.4%, 8개도는 34.3% 감소한 반면 지방광역시 71.1% 증가
  - 공공부문은 121.0%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19.9% 감소해 전체 감소세는 민간부문의 부진이 주도
- (APT) 아파트 인허가 연간 누적치는 수도권은 24.6% 감소한 반면 지방은 3.7% 증가
  - 수도권은 전년 기저 영향으로 감소폭이 컸던 반면 지방은 1월 증가분에 힘입어 소폭 증가

#### 주택 인허가 현황(YTD)

인허가 현황 (호, %)	지역별 합계			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
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
2025년 1~2월	34,955	22,131	4,294	8,530	1,998	1,978	0	20	32,957	20,153	4,294	8,510
2026년 1~2월	30,799	17,846	7,349	5,604	4,415	3,398	993	24	26,384	14,448	6,356	5,580
전년 동기 YTD 대비	-11.9%	-19.4%	71.1%	-34.3%	121.0%	71.8%	순증	20.0%	-19.9%	-28.3%	48.0%	-34.4%

자료 : 국토교통부

#### 아파트 인·허가 추이



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;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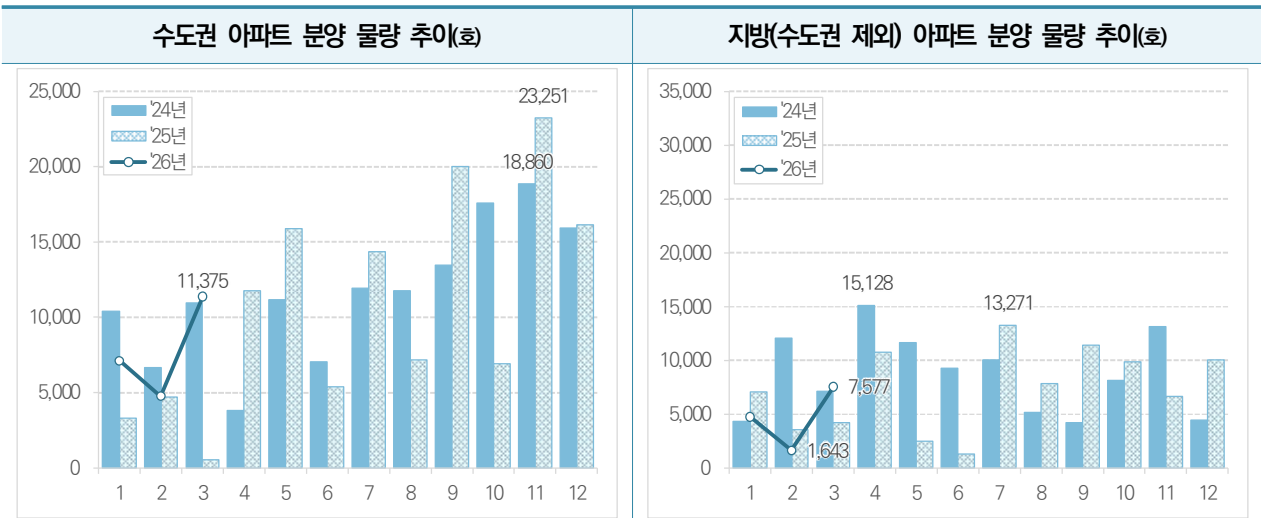
### 3 공급

#### 2분양

- 3월 전국 분양은 1만 8,952호를 기록해 전월(6,423호)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중 최대 월간 분양 실적을 보임.
- 지역별로는 수도권 분양이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반면, 지방은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전년 수준에 못 미침.

- **(수도권) 3월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1만 1,375호로 전월(4,780호) 대비 137.9% 증가**
  - 서울·경기 분양이 집중되면서 수도권이 3월 전국 분양 증가를 주도했으며, 1~3월 누적 분양도 2만 3,27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1.0% 증가함.
  - 3월 누적 분양 물량의 수도권과 지방 비율은 62.5:37.5로, 전년 동기(36.6:63.4) 대비 수도권 비중 상승
- **(지방) 지방 분양은 3월 7,577호로 전월(1,643호) 대비 361.2% 증가해 전월 부진에서 벗어남**
  - 다만 1~3월 누적 물량은 1만 3,963호로 전년 동기 대비 6.0% 감소해, 월간 반등에도 불구하고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 뚜렷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움.
  - 즉 최근 지방 분양은 일부 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, 수도권에 비해 공급 회복의 연속 성과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으로 해석됨.
- **(분양계획) '26년 2분기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7만 2,169가구로,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3만 1,234가구 증가**

####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



자료 : 부동산114.

### 3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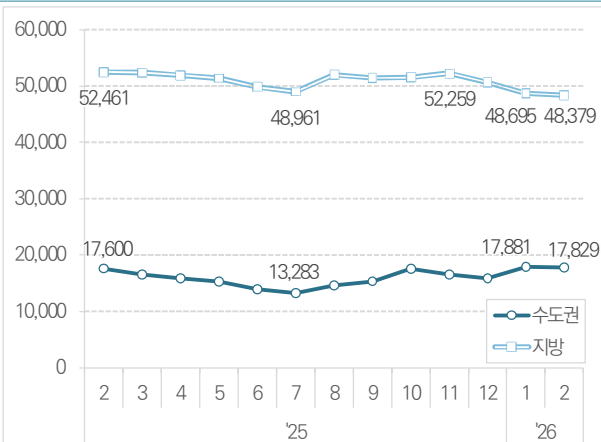
#### 3. 미분양

- 2월 전국 미분양은 6만 6,208호로 집계돼 전월보다 368호(-0.6%) 감소했으나, 여전히 6.6만 호의 높은 수준 유지
-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증가하며 3만 1,307호로 집계돼, 2000년대 후반 이후 보기 드문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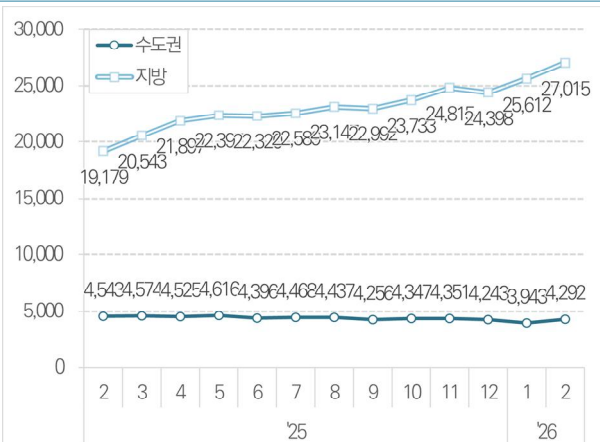
- **(미분양) 2월 미분양은 전월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, 1월 증가분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**
  - 수도권 미분양은 1만 7,829호로 전월 대비 52호 감소함. 이는 직전 저점인 2023년 11월 6,998호 대비 154.8% 증가한 수치이며, 최근 고점인 2025년 1월 1만 9,748호에 비해서는 9.7% 낮은 수준임.
  - 지방 미분양은 4만 8,379호로 전월 대비 316호 감소했으며, 수도권과 달리 최근 들어 완만한 감소 흐름
  - 다만 절대 물량 자체는 여전히 큰 수준이어서, 지방 공급 부담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움.
- **(공사 완료 후 미분양) 2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·지방 모두 증가(MoM +5.9%)**
  -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3만 1,307호로, 직전 저점이었던 2022년 5월 6,830호와 비교하면 358.4% 증가
  -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54호(2022년 3월)에서 4,292호로 늘어 674.7% 증가했고, 지방은 2만 7,015호로 확대돼 절대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방 부담이 훨씬 큼.
  -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보다 시장 부담이 더 큰 지표라는 점에서, 최근의 증가는 단순한 분양 부진을 넘어 실제 재고 누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.

####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

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추이(호)



전국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 물량 추이(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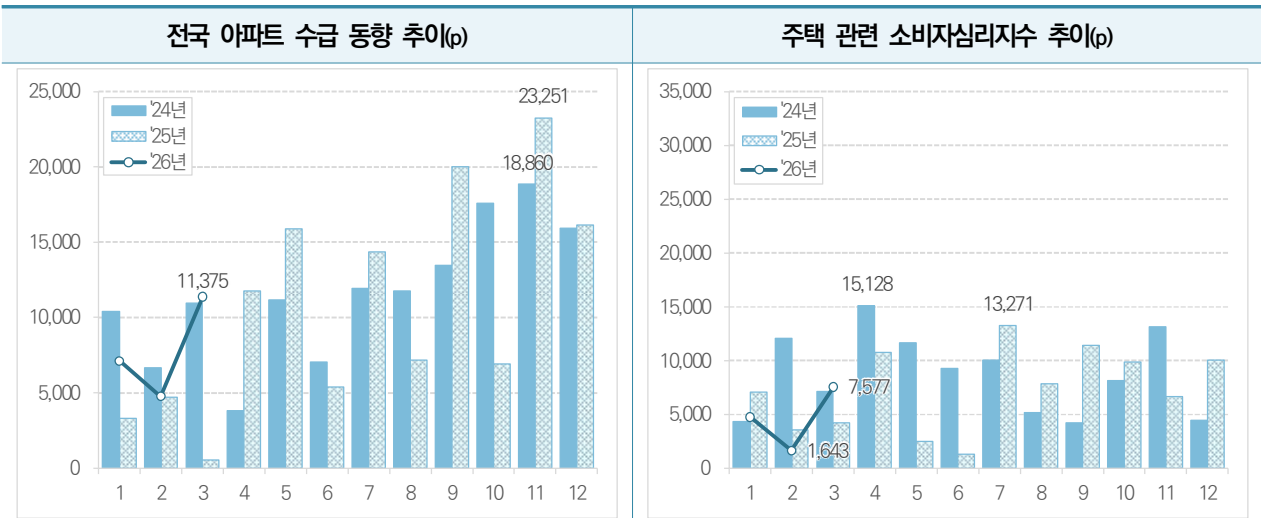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토교통부.

## 4 수요

- 2월 수도권 매매수급동향은 100.9로 지방(93.2)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며, 수도권은 2025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
- 3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96으로 전월(108)보다 큰 폭 하락해, 연초의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임

- **(수급동향) 최근 매매수급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확대되는 가운데, 수도권 중심의 개선 흐름**
  - 2월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수급동향은 각각 100.9, 93.2로 나타나 수도권이 지방보다 7.6p 높았음.
  - 수도권은 100을 웃돌아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권에 근접한 반면, 지방은 여전히 90대 초반에 머물러 지역 간 체감경기 차이가 이어지고 있음.
  - 최근 수급 여건은 매매·전세 모두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그 회복의 중심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수요 회복 강도가 제한적인 국면으로 판단됨.
- **(소비자심리) 3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96p를 기록해 전월 대비 12p 하락**
  - 1월 124p까지 높아졌던 주택가격전망 CSI는 2월 108p, 3월 96p로 빠르게 낮아지면서, 최근의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진정된 모습임.
  - 이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.
  - 즉, 최근 시장은 거래와 수급은 수도권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가격 기대심리는 1분기 말 들어 다시 조정받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, 실제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재차 확산되기보다는 선별적 접근이 강화되는 국면으로 분석됨.

###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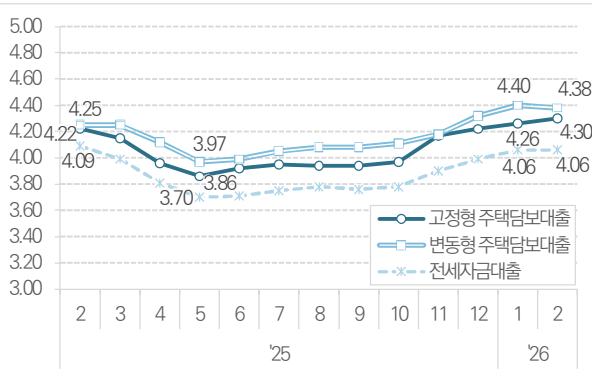
주 :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.;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

## 5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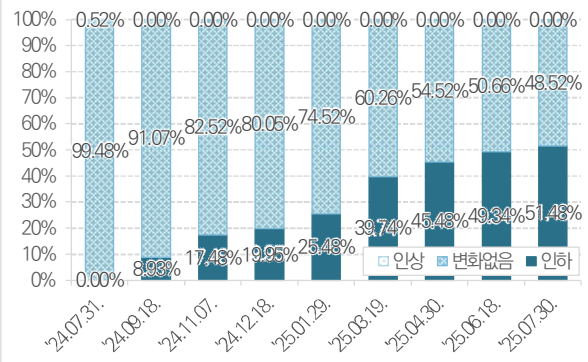
- (주담대 대출액 추이) '26년 1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07.4조 원으로 전월 대비 2.4조 원(0.27%) 증가해 증가세가 이어졌으나, 예년 연초보다 확대 폭은 뚜렷이 축소
  - '26년 1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액 증가량은 2.4조 원으로 최근 3개년 연초 가운데 가장 작았음.
    - \* +5.2조('24.1.) → +4.4조('25.1.) → +2.4조('26.1.)
  - 특히 '24~'25년 연초에는 정책모기지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집행이 맞물려 비교적 큰 폭 증가했으나, '26년 1월에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도 예년 같은 정책대출 중심의 급증 양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임.
- (연체율 추이) 2026년 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.29%로 전월(0.27%)보다 소폭 상승했으나, 2025년 중 고점 수준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 흐름 유지

###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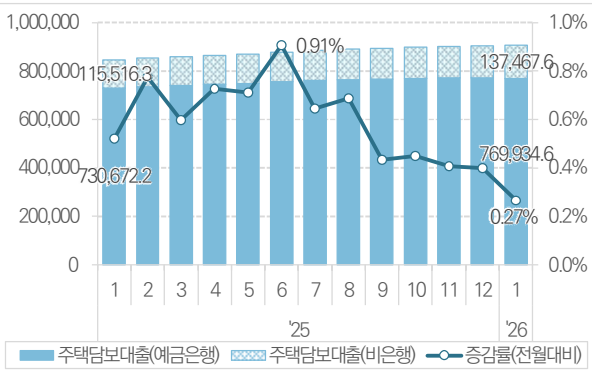
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이(연%)<sup>주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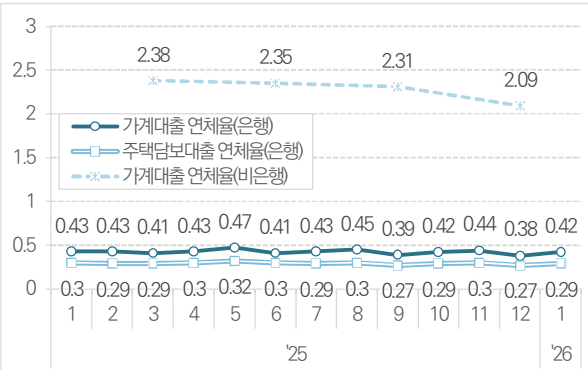
미국 기준금리 변경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(FEDWatch, %)



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추이(좌, 십억원)와 증감률(우, %)<sup>주2)</sup>



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(%)<sup>주3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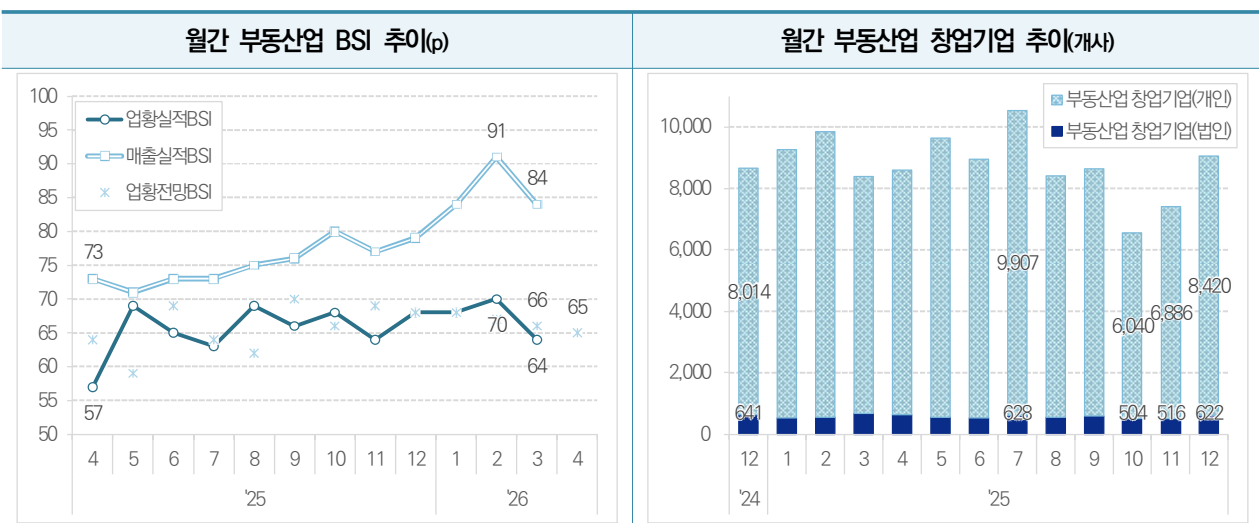
주1 :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,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임.  
 2 :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, 우체국예금,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. 이하 같음.  
 3 :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, 임의로 분기 말(3·6·9·12월)에 입력하였음.  
 자료 : 한국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감독원, Chicago Mercantile Exchange.

## 6 부동산산업<sup>1)</sup>

- 3월 부동산업 업황실적 BSI는 64p로 전월(70p)보다 하락했으나, 5월 전망치는 65p로 소폭 개선 기대가 이어짐
- '25년 12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9,042개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, '23년 이후의 낮은 창업 수준이 구조화

- **(부동산업 BSI) 3월 부동산업의 업황실적 BSI는 64p로 조사돼 2월 70p에 비해 하락했으나 여전히 최근 평균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**
  - 3월 업황실적 BSI는 전월보다 6p 낮아졌으나, 2025년 4월의 57p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최근 1년간 형성된 60p대 중후반 박스권 내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.
  - 단, 3월에는 전달 전망치(67p)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고, 4월 전망치도 66p, 5월 전망치는 65p로 제시돼 업계의 체감경기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움.
- **(부동산업 창업기업 수) '25년 12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개인·법인을 포함해 9,042개로 전월(7,402개)보다 증가했으나, 여전히 예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**
  - '25년 월평균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8,772개로, '16~'22년 평균(2020년 1월 제외)인 약 2.46만 개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.
  - 특히 '23년 이후 월간 창업기업 수는 대체로 1만 개 내외에 머물렀고, '24년과 '25년에는 8천~9천 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 모습이 나타남.

###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


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, 한국은행.

1) 본 고에서는 '부동산산업'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'L.부동산업(68)'로 정의함.

## 7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

항 목	변화율 및 변화량						최신 집계치	최근 5년 변화 추이	
	직전 5년		직전 3년		YoY	MoM			
	고점	고점대비	고점	고점대비	-	-			
	저점	저점대비	저점	저점대비	-	-			
거시경제	경기선행지수 (p)	125.2	0.0%	125.2	0.0%	7.1%	0.8%	125.2	
		105.0	19.2%	109.0	14.9%				
거시경제	소비자물가지수 (p)	118.4	0.0%	118.4	0.0%	2.0%	0.3%	118.4	
		101.8	16.3%	110.5	7.1%				
가격지수	수도권 아파트 매매 (p)	473.7	0.0%	473.7	0.0%	7.9%	0.3%	473.7	
		414.5	14.3%	414.5	14.3%				
가격지수	지방 아파트 매매 (p)	321.0	-10.1%	302.9	-4.7%	1.9%	0.2%	288.6	
		282.7	2.1%	282.7	2.1%				
거래량	수도권 주택 매매 (건)	49,358	-40.3%	42,967	-31.4%	22.6%	-2.3%	29,459	
		10,299	186.0%	15,083	95.3%				
거래량	지방 주택 매매 (건)	204,218	-43.4%	147,676	-4.7%	14.0%	-6.0%	115,570	
		51,522	124.3%	76,072	51.9%				
공급	전국 아파트 분양 (호)	63,520	-87.5%	42,046	-81.2%	-64.9%	-58.2%	7,913	
		4,761	66.2%	4,761	66.2%				
공급	전국 주택 미분양 (호)	75,438	-12.2%	74,037	-10.6%	-5.5%	-0.6%	66,208	
		13,842	378.3%	57,925	14.3%				
금융	주택담보대출 금리 (%)	4.82	-0.50%p	4.56	-0.24%p	0.09%p	0.03%p	4.32	
		2.69	1.63%p	3.5	0.82%p				
금융	주택담보 대출잔액 (십억 원)	907,402.2	0.0%	907,402.2	0.0%	7.2%	0.3%	907,402.2	
		691,756.9	31.2%	749,500.5	21.1%				

※ 주1 :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.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.

※ 주2 :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.

※ 주3 : 2024년 1월 매매가격지수 재편 시행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여, 재편 전후 지수의 직접 비교가 곤란함.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, 부동산114

약어표(가나다 順)

용어	내용	비고
BSI	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urvey Index)	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
CSI	소비자심리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	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
MoM	전월 대비 변화율(Month-on-Month)	
QoQ	전분기 대비 변화율(Quarter-on-Quarter)	
YoY	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(Year-on-Year)	
YTD	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(Year-to-Date)	
수도권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	국가데이터처 신지역코드 순
지방광역시	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	
8개도 (세종포함)	세종특별자치시, 강원특별자치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	

김성환 연구위원  02-3441-0734  shkim@cerik.re.kr